



빅토르 위고의 생가. 10여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파리에 돌아온 위고는 이 방에서 후배 문인들과 살롱을 꾸렸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서 관람객이 인상주의 화가 마네의 작품 '폴밭 위의 점심식사'를 감상하고 있다.

/파리=정성필 객원기자 sphiljeong@gmail.com

### 세계의 문화수도 파리 오디세이

파리와 벨 에포크



####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벨 에포크(La belle époque)'란 유럽이 전에 없던 평화와 번영을 누리던 19세기 말에서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20세기 초까지의 시기를 뜻한다. '좋은 시절'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인 이 단어가 전 유럽의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고유명사가 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 여러 나라의 '좋은 시절' 중에서도 프랑스의 '좋은 시절'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이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혁명 이후 격변하던 정치 상황이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세에 이르렀고, 자본주의가 정착하면서 개인의 욕구가 극에 달했다. 제 2제정을 이끌던 나폴레옹 3세가 주도한 대대적인 도시계획으로 파리는 근대 도시의 걸모습을 갖추게 됐고,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발달로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됐다. '벨 에포크'로 가는 길은 수월해 보였다. 돈이 있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문화가 산업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문화의 소비 뿐 아니라 생산도 파리로 집중되고 있었다.

◇ 미술  
파리 센느 강변의 오르세 미술관에는 19~20세기 초 사이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루브르 박물관이 고대에서 19세기 이전까지, 퐁피두 센터의 현대미술관이 20세기 중반 이후를 다루고 있는 점을 상기한다면

## 미술, 고호·피카소 등 젊은 작가들 교류...인상과 탄생 문학, 도시가 작품 소재...낭만·사실주의 대작 쏟아져 문화·예술 미학의 절정기 큰 족적...여전히 향수와 애착

국가 수장고에서 19~20세기 초 미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인상주의가 있다.

클로드 모네가 인상주의의 출발점이 되는 회화 '인상, 해돋이'를 그린 것이 1872년, 시슬로, 드가, 르누아르 등 공식 살롱전에 출품하지 못한 당시 아웃사이더 작가들과 단체전을 연 것이 1874년이다. 이 전시회 이후 언론에 의해 명명된 인상주의라는 사조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포비즘, 큐비즘, 표현주의, 아르 누보 등으로 발전하는 현대 미술사의 길을 틈 인상주의는 벨 에포크의 가장 큰 흔적 중 하나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파리에서 활동한 화가들은 반고호, 고갱, 세잔 등으로 낯설지 않은 이름들이다.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불리는 피카소는 '아비뇰의 처녀들'(1907)로 큐비즘의 탄생을 알렸으며, 추상주의의

창시자인 러시아인 칸딘스키 역시 파리에서 존재를 알렸다. 이들은 같은 공간에 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 가난했지만 젊고 열기왕성한 화가들의 교류가 미술사에 이렇게 큰 족적을 남길 것이라고,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을 불러모은 것도, 작업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도 파리와 벨 에포크였다.

◇ 문학  
문학에 있어 벨 에포크를 대표하는 사조나 작가를 내세우긴 어렵다. 오히려 독자층이나 유행 구조의 다양화 등 외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사실 파리의 문학은 이미 30~40년 전인 19세기 중반을 전후해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로 경향을 달리 하며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 대작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 이 시기이기 때문이다. 빅토르 위고와 스탕달, 발자크, 플로베르,

에밀 졸라 등의 작품에는 19세기 프랑스가 겪고 있던 찬란한 영화와 그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도시 자체가 작품의 주제가 된 것은 전에 없던 일이다. 현대 시의 시조로 불리는 보들레르는 스스로 마약과 알코올에 의존한 방탕한 생활을 즐겼지만 인간의 욕망까지도 집어삼킬 듯한 19세기의 파리에서 우울함을 보였다. 그의 거의 모든 작품은 그가 낳고 자란 파리에 대한 오마주로 가득하다. 경멸을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를 풍부하게 누렸던 19세기를 지나 도작한 벨 에포크에 나라 전체를 뒤흔든 상징적인 사건은 '드레퓀트 재판'이다. 스나이퍼 몰려 역물하게 누명을 쓴 유대인 장교를 둘러싸고 프랑스 지식인 사회는 돌로 분열했다. 저널리스트로도 활동했던 졸라는 드레퓀트를 옹호하는 글을 신문에 썼다가 영국으로 망명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좌우의 양측에 깊은 생체기를 남겼지만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 근대국가로 가는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 그 밖에  
파리의 상징 에펠탑이 등장한 것은 1889년 만국박람회였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박람회를 유치했는데, 1850년대 런던에서 제 1회 박람회가 열린 이래 파리에서만 네 번째 열리는 행사였다. 벨 에포크는 유럽 각국이 박람회를 통해 자신의 기술력

과 발전상을 다른 나라에 알리고 교류하던 시기였다.

동시대의 철학자 샤를 페기는 "세상은 로마시대에서 보다 1800년에서 1914년 사이에 더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제 6, 제 7의 예술로 불리는 사진과 영화가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자전거와 자동차, 전철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았으며, 영불 해협을 비행기로 첫 횡단하는 시도가 성공했다. 퀴리 부부나 파스퇴르 등의 활약으로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친 과학적 발견들이 이뤄진 것도 이 때다.

음악 분야에서, 벨 에포크에 활동했던 유명 프랑스 작곡가는 드뷔시와 생상 등으로 그 수가 많지 않다. 그러나 유럽 다른 나라 음악가들이 파리로 모여들었다. 러시아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의 문제작 '봄의 제전'이 첫 상연돼 관객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것은 상설리제 극장이었다.

문화의 흥수와 격변하는 사회, 파리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시작한 것은 벨 에포크를 포함한 19세기부터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넘는 시기의 일들이라고 해서 과거의 영화로 치부하기엔 파리인들의 문화 본능에 남은 이 시절의 향수가 너무 짙다.

파리=정성필 객원기자  
sphiljeong@gmail.com



Korea Be Inspired

NAVER (+Mobile) 제14회 장성흥길동축제

http://tour.jangseong.go.kr

# 제14회 장성흥길동축제

The 14th Jangseong HONGGILDONG Festival

2012. 5.25 (금) ~ 27 (일) / 3일간  
흥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일원 (황룡면 아곡리 303)

주최 Jangseong 장성군 주관 장성군축전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한국관광공사

나만의 활동국을 찾아라!!